



태왕, 조합원 가압류... 조합원 죽이는 '말살행위'

태왕 조합원 가압류 조합원 죽이는 말살행위 '울부짖어' 유봉수 조합원장 성명 발표

봉덕동 6단지 가로주택정비 조합원들의 태왕이앤씨를 향한 성남민심이 '노도(怒濤)'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태왕의 횡포는 곧 '민란의 핵'이라고 피부어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사생결단식 전투의 백발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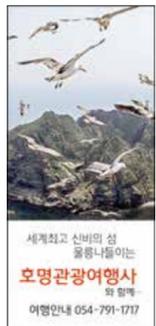


조합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태왕건설 부당가압류 당장 해지하라는 항의 표시다. 이들은 "태왕의 조합원 가압류는 원천 무효"라며 울탄폭죽을 가했다.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한마음이 돼 법원과 대구시청, 태왕그룹본사, 남구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태왕을 규탄했다.

조합원들은 △태왕건설 부당가압류 당장 해지하라 △조합원 죽이는 태왕그룹 파렴치 행동 처벌된다 △태왕그룹 총수 카지노 출입 댈 말이나 △태왕건설 고소고발 철저하게 조사하라 무책임한 경찰 조사 지역파탄 원인이다 △대구시민 다 죽는다 태왕건설 각성하라 △대구시장 직권으로 즉각 개입하라. 태왕건설 횡포에 대구시민 폭망한다. 태왕건설 부당 가압류 당장 해지하라.

배신뿐이다 △태왕은 조합원 인격말살 당장 중단하라 △태왕 조합원 가압류는 조합원 죽이는 '말살행위'라고 울부짖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유봉수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편 희망으로 야심차게 진행됐던 봉덕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는 분양가 하락과 미분양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우려되자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조합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 대여금(사업 참여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조합 임원에 모두에게 부동산 및 금융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자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고통과 충격을 주고 있다. 동등한 계약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조합의 존재를 깰고 무시하며 일방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태왕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이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유력한 건설업체 태왕이 주민을 상대로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분노했다. 조합원들은 30일간의 투쟁을 선포,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임중식 경북교육감은 2일 오전 본청 옹비관에서 9월 소통·공감의 날에 참석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대 회장 연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수산업 중심지 경북 수산식품산업 위기 봉착...

김재준의원,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법적제기 마련

김재준(사진) 경북도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북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련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가능 △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

에 도내 생산 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는 동해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산업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인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에 의한 어업자원 고갈, 어촌 지역 고령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역내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도 의원은 "K식품의 한류 등으로 인해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운영, 부가치 창출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했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 이철우 행정통합 무산 '어깃장' 놓지 마라

지난번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 논의한 통합 모델은 경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 두는 기존도 중심 통합 모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빼앗는 충고를 했다. 대구경북(TK)행정통합 논의 무산과 관련해 "뒤늦게 어깃장 놓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번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논의하던 통합 모델은 경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이다. 최초로 도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어깃장 놓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합 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통합이 아니라 질적통합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튼 이번 통합이 장기 과제로

널어간 것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게재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29일 정부에 행정통합 중재안을 요청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7일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고, 다음 날인 28일에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행정 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두 단체가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관할구역 문제, 시민 동의 방식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여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성명서

부편 희망으로 야심차게 진행되었던 우리 봉덕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는 분양가 하락과 미분양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우려되자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우리 조합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여금(사업 참여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공사도급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 임원에 모두에게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자행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고통과 충격을 주고 있으며 동등한 계약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조합의 존재를 깰고 무시하며 일방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유력한 건설업체 태왕이 주민을 상대로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공사 태왕은 사업 참여 이전부터 공동시행사(주)동흥건설의 존재 사실과 동흥건설과의 인연으로 정비사업 시공자로 참여하였으며, 사업 구도와 공동시행사(주)동흥건설과의 계약 내용, 용역비의 지급

시기, 방법에 관한 내용 모두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 지금의 절차가 계약에 의거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실 모두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전체를 부정하며 조합에 책임 모두를 전가하며 그 핑계로 사업 참여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태왕의 주장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대여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조합은 상상 못할 엄청난 피해를 뒤집어써게 됩니다. 대폭 상승된 공사비로 인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은 물론이고 소규모 사업자에 참여할 시공사가 있을지도 의문시됩니다.

만약 태왕의 주장대로 간다면 다음 차례는 조합 임원이 아닌 조합원 모두의 재산에 압류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과 조합원 모두는 극악무도한 시공사 태왕이 자행한 만행을 폭로하고 약속을 배반한 파렴치한 기업은 반드시 규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태왕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2024. 8.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봉수

달성군의회,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펼쳤다. 이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은영 의장과 군의원

들은 점심식사 배식 봉사 후, 봉사자들과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영 달성군 의회 의장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제9대 하반기 의정활동 시작 이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실외이동로봇 기반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비 100억 확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사업 순항 자율주행 실외 이동로봇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로봇기업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정성평가 기반구축'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은 본격도에 올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최근 지능형로봇법 개정과 운행안전 인증제도 도입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순찰 등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의 주행성능, 충돌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품질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1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195.9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 9월부터 2028년까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부지 내에 '실외이동로봇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충돌 안전성·구동부 성능 등 평가장비 4식을 구축해 평가기술 개발, 시험평가 지원, 애로기술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본 사업은 국내 유일 서비스로봇 종합



실증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가상 실외주행 공간과 시설을 연계해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며, 공모 선정평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시험·실증·인증 기능을 모두 갖춘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인프라조성 등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7년 시범운영, 2028년 본격운영을 공표했다.

인프라 조성의 첫 단계이자, LH와 비움 등 협의가 필요한 사업부지매입 절차는 대구시가

전담해 추진했으며, 당초 계획한 면적, 위치와 동일하게 부지매입계약을 지난 6월 완료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총괄 수행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온라인 수요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수렴·반영하여 인프라를 조성

할 계획이다.

최재훈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난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통과를 계기로 로봇도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연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일대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반효진 선수 동구 홍보대사 위촉

사격여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재)동구교육재단 장학금 지급

2024년 제33회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동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동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반효진 선수를 동구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반효진 선수는 지난 7월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땀다. 특히 반효진 선수는 동구 방촌동에서 태어났으며,

동구 소재 용호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동구 홍보대사가 된 반효진 선수는 앞으로 동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재)대구동구교육재단은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반효진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반효진 선수를 동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자랑스럽다. 반효진 선수의 앞날을 동구 주민과 함께 응원하며, 동구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위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통과'

대구·경북 지자체 최초 인증 사후 심사 인증 자격 유지

군위군은 지난달 27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 개선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 제도이다.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엄격한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부적합이 1건 이상인 경우 인증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군위군은 지난 2023년 9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심사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하

여사후 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심사는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진행됐다.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패리스크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추진 결과에 대한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등 절차 이행을 확인받으며 시스템 운영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았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초 '2024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렴실명제 챌린지, 청렴주니어보드 공감 토론회, 찾아가는 청렴 토크(talk)/톡(talk)/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인증은 우리 군의 청렴한 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부패 방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중구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중구청장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경대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개학을 맞아 마련한 캠페인에서는 홍보 물품을 나눠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지도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운전자들은 스쿨존 주변 운전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행운전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달성군,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아동 결식 Zero 앞장

행복 얼라이언스와 민·관 협력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사회공헌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와 지역 내 아동 결식 ZERO를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재훈 달성군수, 행복얼라이언스의 구성원인 행복나래루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사회협동

조합 최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결식우려 아동이 하루 최소 두 끼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성군에서는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12개월 동안 1만400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나래루는 사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고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에서 해당 아동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도시락 사회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 및 배달을 담당하여 아동들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행복얼라이언스에서는 아동 결식 문제 해결과 함께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지역 내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전달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행복얼라이언스와 협력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121개 기업, 94개 지방정부, 42만명의 일반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이다.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루는 SK가 설립한 구내 서비스 전문회사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 수성투어버스 특별노선 운영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람객 이동 편의 위해



수성구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기간에 맞춰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수성투어버스 특별노선을 추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성투어버스는 한국관광 100선과 야간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대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과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관광버스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성못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이르는 10개 정류장 구간을 하루 7차례 순환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운영되는 특별노선은 수성못

역에서 출발해 수성못을 순회한 후 대구간송미술관을 거쳐 다시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터'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오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1시와 4시 하루 3차례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별노선 탑승객은 수성못과 대구간송미술관 정류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며 요금은 500원으로 기존 순환노선과 같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성투어버스가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간송미술관과 수성못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투어버스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성돼 대구시관광협회가 운행하고 있다.

오픈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탑승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대구시 특사경, 안전관리 특별단속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다. 특히 추석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카드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조여은 기자

경찰, '봉화 농약 사건' ...내달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은 '봉화 농약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1명을 특정, 내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초복인 지난달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오리고기 등으

로 점심을 먹은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60~80대 여성 5명이 심정지, 의식불명 등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위세척을 실시, 검출물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의 농

약이 검출됐다. 이들 중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쓰러졌고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달 30일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중 관계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로당내 불화가 있었다" 등의 진술도 있었다.



경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제패!

경북휴먼테크 김민재 대통령상 49개직종 150명 참가, 83명 입상

경북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역대 최고 5년 연속 전국 제패라는 신화를 세웠다.

사상 최초로 5년 연속 종합우승, 학생부 7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49개 직종 150명의 선수가 참가해 83명이 입상했다.

도는 △자동차페인팅 김민재(경북휴먼테크) △공압전자기기 이준희(금오공고) △농업기계정비 김진현(한국생명과학고) △판금철골구조물 박성빈(신라공고) △주조 원영대(포항제철공고) △배관 김종석(신라공고) △사이버보안 류건호(경북소프트웨어고) △타일 김용경(경북직업훈련교도소) △목공 한성호(상주공고) △실내장식 서재덕(안동교도소) △그래픽디자인 김도희(구미전자공고) △화훼장식 조준희(개인) 선수가 12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계설계/CAD 등 16개 직종에서 18명 선수가 은메달, 산업용 드론제어 등 15개 직종에서 15명의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

자동차 페인팅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경북휴먼테크 김민재 선수는 대회 최상위(최고득점)로 입상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아 경상북도 숙련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금오공고(금메달 1·은메달 4·동메달 3)는 우수 선수 육성기관에 주어지는 단체표창인 동탑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1위) 1000만원, 은메달(2위) 600만원, 동메달(3위) 400만원 등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1, 2위 입상자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 부여,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통령상을 받은 김민재 선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선배를 보며 힘을 냈다"며, "이번 대회에서 발휘한 기술을 더 연마해 2026년 상하이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세부 결과와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마이스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5년 연속 전국대회 제패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경북 선수단 여러분에게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하는 세상, 기능인과 기술인이 잘사는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민고 맡길 수 있는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부모님 걱정 털어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9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교 생까지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

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준다.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는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안동, 예천, 구미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이용은 경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 이용료는 무료이다.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구미시는 등교 곤란과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센터 내 병상에서 전문간호사가 보살피는 병

상 돌봄도 함께 시행 중이다.

9월부터 상주·경산·칠곡·포항은 서비스를 첫 개시 하고, 구미는 서비스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김천·영주에서 추가 서비스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이가 아프면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부모는 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다. 알하는 부모가 아픈 내 자식을 언제까지 믿고 맡겨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794명 발표

초졸 합격률 89.19%

중졸 합격률 68.84%

고졸 합격률 68.87%

평균 합격률 69.53%

(여·74)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황모(78)씨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문모(여·11)양, 중졸 김모(11)군, 고졸 오모(13)군이다.

합격증서는 오는 13일까지 시험 응시 지역인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다.

이후에는 도 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응시자 개별 성적은 오는 13일까지 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과목·성적증명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초·중·고 행정실과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를 통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합격자발표에 따른 문의의 사항은 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마당·시험정보·검정고시' 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054-805-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794명을 도 교육청 누리집(http://www.gbe.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정고시는 1307명의 지원자 중 1142명이 응시해 794명이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은 69.53%이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33명(합격률 89.19%), 중졸 137명(합격률 68.84%), 고졸 624명(합격률 68.87%)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방모(여·71)씨,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황모

대구 팔거천 수질 정화 향상 우리가 앞장...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EM흡공 던지기 계몽 운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는 지난달 29일 북구 팔거천(동천교 하단)에서 수질오염 개선에 탁월한 EM흡공 던지기 계몽운동을 했다.

EM흡공은 황토와 미생물로 포함된 EM원액을 섞은 발효물로 하천의 악취와 독성제거, 녹조 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흡공 1개당 3.3㎡ 정화작용이 약 6개월간 지속된다.

계몽운동에는 직원 및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북구청 수질보존팀 직원 및 대구교통공사 동천역 직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경북노인복지관 직원, 북구시니어 직원 및 어르신,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000개의 EM흡공을 던지며 팔거천의 수질 정화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몽운동 후에는 팔거천 산책로를 걸으며 하천 주변 환경정화



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실시했다.

간헐 경북지부는 단체현찰뿐만 아니라 후원사업, 메디체크봉사단 운영, 임직원 봉급모으기 캠페인, 취약계층 사회공헌건강검진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가 경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940만원을 전달했다. 박민숙 전국연합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달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시사랑기부금 활성화

를 지원하며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특히 기부금 940만원은 국가기념일인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하며, 이번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 가 열리는 경주를 기부처로 선정해 회원 한명 한

명 마음을 모았다. 또 회원들은 먹거리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경주시사랑기부금을 담례품으로 선택했다.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는 여성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농촌 생활에 활력을 높이고 선진 농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단체다.



경주서 최대 e스포츠 대회 'LCK 서머 결승전' 열린다

실내체육관 팬 페스타 현장 6일부터 3일간 대회 예정 관광객 유입·경제 활력 기대

경주에서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서머 결승전'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대회는 LCK 서머 결승전 경기장인 경주실내체육관과 팬 페스타(부대 행사)행사장인 타임캡슐광장에서 나눠 펼쳐진다.

대회 결승 진출전은 7일, 결승전은 8일 각각 오후 3시부터 양일간 진행된다. 팬 페스타는 대회 첫날인 6일부터 진행돼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지난달 20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된 결승전 출전·결승전 티켓은 단 시간에 전석 매진돼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경주시는 팬 페스타 행사장에 대형텐트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부대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했다.

여기에 결승전출전·결승전 야외 이원 생중계로 현장감도 더했다.

행사기간 팬 페스타 대형텐트 내에서는 대회 생중계뿐만 아니라 TFT 인플루언서 매치 △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칼바람 대회 △ QWER 축하무대 △ 경주시립신라고취대공연 △ 단채 뷰인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와 즐



갈거리를 제공한다. 또 △경주시 및 LCK 공식 파트너사 홍보 부스 △결승 시리즈에 진출한 3개팀 부스 △라이엇 머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엇 스토어'도 꾸며져 있다. 팬 페스타 야외 행사장에는 푸드존 및 배달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음식과 편의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무대, 천막 등 임시 시설물 안전성 검토, 위험 요소 안내 표지판 및 비상 대비 통로 확보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대회 안전에 철저히 기했다.

더불어 대회기간 동안 종합상황본부를 설치·운영해 행사 시설 및 관공관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조와 응급처치 등의 신속한 대응을 이어간다. 시는 이번 LCK 서머 파이널 개최로 e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을 비롯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2024 LCK 서머 결승전은 경주의 아름다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LCK의 명성이 이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다로 떠나는 바퀴 달린 도서관' 행사 운영

시립도서관 오는 7일 이벤트

경주시립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9월 7일 나정고운모래해변 일대에서 '바다로 떠나는 바퀴 달린 도서관'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 북카페 △해안에서 만나는 북큐레이션 △바닷가 사진관 △바다 입체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바다 북카페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해 북크닉 공간을 조성하고 감포, 바다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이용자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인다.

해안에서 만나는 북큐레이션은 바다, 감포와 관련된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공간을 조성해 나정고운모래해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편하게 책

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독서하는 모습의 사진을 인증하면 그 사진을 출력해 선물로 증정하는 '바닷가 사진관' 프로그램(선착순 100명)도 펼쳐진다. 여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다 풍경을 담은 입체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선착순 30명)도 덧붙여 진행된다. 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및 SNS를 참고하거나 감포도서관 자료실(054-779-891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환 시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와 일상생활 속 책 읽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추천 받는다

13개 항목 평가 최종 5곳 선정 표창패 수여 각종 위생용품 지원

경주시가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을 위한 시민·관광객·유관기관·유명장사의 추천을 받는다

1일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 대상 참여링크(네이버 폼 https://naver.me/GV2SGOx6) 또는 QR코드를 통해 친절음식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번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은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선정 절차는 1차 추천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2차 현지심사를 진행한다.

2차 현지심사는 △응대서비스 수준 △고객 편의시설 △위생관리 △체감 만족도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을 평가해 최종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친절음식점에 선정된 5곳은 표창패 수여 및 각종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의 부상이 수여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은 △요식공식당(황남동 소재) △산내산천매운탕(산내면 소재) △수석정(월성동 소재) △쿠우동(황남동 소재) △정성한끼(동천동 소재)가 선정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경주를 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경주의 친절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베스트 친절음식점을 선정할 예정이니 시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명절 대비 하수도 준설·시설물 정비

총 15.2km 하수도 준설 인구 많은 지역 우선 공사

경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시가지 전역에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작업은

총 15.2km에 이르는 하수도를 준설하고, 8곳 0.3km에 이르는 노후관을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120개의 맨홀 청소와 20개의 뚜껑 보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경주시는 이번 정비를 위해 살수차와 흡입차 각각 2대씩을 투입하고, 인부 4명과 하수도 준설원 4명을 동원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되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내 막힘을 방지하고, 쓰레기 등으로 인한 악취 원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황리단길, 중앙시장, 성동시



장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굴착 중인 하수도 공사 현장은 추석 전까지 임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추석 명절 동안 시민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역량강화교육



고학년용 아동권리 워크북 활용

경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주시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1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경주형 아동권리교육 콘텐츠로 제작한 초등 고학년용 아동권리 워크북을 활용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차이 존중, 통합교육의 의미, 다양성 존중, 난민, 디지털 세상의 우리의 권리, 권리 약속, 속의 시연 및 평가 등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도 아동권리 시민강사 위촉돼, 초등학교, 아동복지 시설 등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시는 아동권리를 전파할 수 있는 시민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올해 1월 기본·심화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13명을 위촉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강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당부한다"며 "경주시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꼬꼬무 기억다방 사업 사회참여 확대

경주시보건소는 올 7월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꼬꼬무 기억다방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사회참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초기 치매환자와 지역주민의 교류 증진을 위해 5개 지역아동센터의 봉사활동과 19개 주간보호센터의 참여를 기반으로 '기억해 카페 운영' 및 '책인 축제'에 참여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도자기 페인팅(컵, 접시) △현수막, 컵받침 만들기 활동으로 '기억해 카페' 운영 물품을 만들었다.

주간보호센터는 실종예방사업인 치매환자 최근 사진 업로드 작업을 9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참여 기관의 학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해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계획이다.

황성공원 천년맨발걷기 참가자 기념품 제공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4일 오후 1시부터 황성공원 천년맨발 걷기 돌레길 일원에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는 황성공원 천년맨발걷기 돌레길 약 2km 거리 걷기를 비롯해 치매예방 실천 다짐, 기억 다지기 안내 등의 홍보 부스로 구성돼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 행사는 경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운동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와 전두엽의 크기를 증가시켜 기억력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 집중력, 언어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과 잔존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치매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치매예방수칙 3·3·3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9월 2일 월요일 5

청송, 교통시설물 일부 정비

청송군은 관내 주요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운전자의 혼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거장애목 정비에 나섰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도로표지판과 교통시설물 주변을 가리

고 있는 병목과 잡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하여 주요도로인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총 연장 59.6km 내에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 새로운 얼굴! 새로운 상징물! 알린다

2003년 개발된 상징물 노후화 3가지 안 선호도 조사 완료해 군민의 날 맞춰 선포식 개최

울릉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새로운 상징물(CI) 개발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달 28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003년 개발된 울릉군의 상징물은 20년 이상 노후되고,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트렌드의 반영, 울릉공항 개항 이후 증가할 관광객에게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상징물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3월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 3가지 안을 도출하여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해 도시브랜드 '에메랄드 울릉도'의 개발과 캐릭터 리뉴얼에 이어 상징물(CI)까지 교체하는 것은 울릉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과 관내 기관·단체 및 공무원과 지역 학생들도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 울릉군 전체 인구 9,207명(24.7월 기준) 중 1,250여명이 참

여하여 13.57%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1안이 53%, 2안이 22%, 3안이 25%로 울릉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그대로 상징화하여 정체성을 강조한 1안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로 도출된 1안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선

보일 예정이다.

남 군수는 "울릉의 새로운 얼굴을 위해 많은 주민이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관심이 큰 만큼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울릉도 가장 잘 형상화 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완료토록 할 것이며, 완성된 상징물은 10월 25일 군민의 날에 맞춰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어깨춤이 더 덩실! 우리 춤 좋을시고!"

영덕문화관광재단 창작무용극 '괴시리연가 향이와 룡이' 종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의 창작무용극 괴시리연가_향이와 룡이를 지난 29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인 영덕 괴시리민속마을을 배경으로 판소리와 한국 전통춤, 연극적 요소를 결합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되었다.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이자 경상북도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전통연희컴퍼니 예심은 작년 영덕 축산항의 해녀 이야기를 숨비·바다라는 창작연희극으로 제작 발표했고 올해는 유서 깊은 괴시리민속마을의 인물과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의 사랑을 화려한 한국 춤사위로 풀어냈다.

극의 주요 인물은 괴시리마을에서 태어난 고려 말 대학자 목은 이색과 청춘남녀 향이와 룡이, 아름다운 괴시리마을의 영상 아레 펼쳐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전문 춤꾼들의 몸짓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의 관객은 실제 괴시리마을과 영덕 관내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신명나는 우리 장단, 우리 춤에 어깨춤을 추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괴시리 주민 관객은 공연을 관람한 후 "반 백년을 넘게 생활해 온 괴시리마을이 지난 무대 영상과 한국춤을 보며 마음이 설렘고 새삼 괴시리마을 주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괴시리연가_향이와 룡이>를 연출한 장임순 대표는 "이번 무용극을 통해 영덕의 명승지 중 역사 깊은 괴시리마을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작품이 영덕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통연희컴퍼니 예심은 2008년 설립되어 지역의 향토 역사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전문 국악 단체이다. 현재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영덕 군민극단>의 기틀도 다지고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괴시리연가_향이와 룡이>와 같은 공연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스텝의 무용단 △뮤지컬 인사이트 미 △The 울림(청소년 앙상블단)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y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하 기자

김천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캠페인

9월 생활 실천 챌린지 전개 상·하반기 현금 포인트 제공

김천시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실천을 독려하고자 줄이자 탄소, 살리자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9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하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월의 실천 과제는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이 챌린지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상·하반기(연 2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전 국민이 환경 보호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가입해 주소, 면적, 구성원 수, 고객 번호(전기, 수도, 가스) 등을 입력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청송군, 추가경정 예산안 군의회에 제출

AI기반 산불안전 CCTV구축 등

청송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추경 보다 450억 원(8.76%)이 증가한 5,585억 원을 편성해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27억 원(중 398억 원, 8.41%), 기타특별회계가 458억 원(중 52억 원, 12.89%) 규모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에 21억 원을 최우선 편성하고, 주요 현안사업인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송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안덕산수도 인지리 배수관복선화공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AI기반 산불안전 CCTV구축사업 등에 114억 원을 편성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등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속한 수해복구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 남은 기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피식대학 3인 홍보대사 위촉

지역 축제·문화·관광 자원 알리 영양고추 H.O.T Festival 중점 위촉

영양군은 지난 달 29일 제16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온라인콘텐츠 창작자 피식대학 3인(이용주 외 2)을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식대학은 '피식대학-피식 소라'는 대표적인 콘텐츠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예능 작품상을 수상하며 단순히 알고리즘의 높이라고 평가받던 유튜브의 새로

운 인식과 가치를 만들어 내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양군과의 인연으로 시작하여 현재 영양고추 H.O.T Festival 기간까지 맞춰 약 2주간 매일 하나씩, 영양군x피식대학 콘텐츠를 올리며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신박하고 유쾌한 영상들을 만들며 시청자들의 행사 참여 욕구를 끌어올리며, 역대급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제16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 개막 전 개최되며, 피식대학은 앞으로 영양군 지역 특산물 및 축제 흥

보활동을 하게 된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의 고향,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피식대학은 앞으로 '지역 축제·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군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은 앞으로 피식대학과 함께 지자체와 유튜브의 전례 없는 콜라보로 지역 홍보에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며, 전국 최초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피식대학에는 영양군과 협업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권윤동 기자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대회

청송군은 2024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배드민턴협회, 청송군배드민턴협회 및 청송군 체육회가 주관하며 청송군, 청송군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엘리트 중·고등학생 선수 약 7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배드민턴의 성지 청송군은 배드민턴 종목 지원확대와 전문학교 육성 등으로 국내 최고의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배출 및 각종 전국대회 우승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의 개최는 관내 선수들에게 전국의 엘리트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수 육성 및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송군 배드민턴 종목 활성화와 관내 선수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회기간 선수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선수들이 실력발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천 소재 (주)신경북안전건설링, 기부금 기탁

신녕면행정복지센터에 500만원·답례품 전달

영천시는 지난 달 30일 (주)신경북안전건설링 전정승 경영책임과 이해한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주시 현곡면에 소재한 (주)신경북안전건설링은 재해예방 기술 지도와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이해한 부사장 명의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또한 전정승 경영책임의 외가인 신녕면의 이웃을 위해 사용될라며 신녕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는 전정승 경영책임은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남다른 기부 등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전정승 경영책임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치산계곡과 공산폭포 등에서 뛰어놀던 생각을 하면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며, "앞으로도 내가 필



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 발전을 위한 기탁금과 함께 고향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며, "소중하게 모아진 기부금은 영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본사인사

편집국/지방부

정창명 차장대우(포항담당)

김동수 기자(문경담당)

의원면직 8월31일자

의성 출항기업 (주)건영산업, 가전제품 후원

의성군 출항인사(주)건영산업은 지난 29일 춘산면에 창장년층 남성 1인 가구를 위해 생활가전 전자레인지 10대를 후원했다.

이날 전자레인지를 후원은 김중호 대표는 평

소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창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위기에 처한 내 고향 창장년 1인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탁했다.

춘산면 보건복지팀에서는 "관내 창장년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생활 가전이 없어서 레트로식품 등을 지원해도 조리 못해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따뜻한 밥 한끼라도 제대로 먹는다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봉화,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 모범 사례 최선”

관련 단지 실시설계 보고회
봉성면 창평리 일원 5.3ha
민선8기 역점 사업 협조 당부

봉화군은 지난 8월 30일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는 봉화 기후를 반영한 작물별 최적 재배시스템 구축, 임대농가의 독립된 작업공간 제공, 양액재활용 시설 등 봉화만의 특화된 세부설계내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외부 청년층의 인구유입 확대와 더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농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봉성면 창평리 일원 5.3ha 부지에 조성된다.

온실 조성 면적은 3.5ha로 2개 동으로 조성되며 부대시설로는 스마트팜 연구시설, 자원재생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경상북도와 함께 만들어 가는 봉화군 임대형스마트팜이 지자체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봉화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이어 배진태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3차 봉화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개최됐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임대형스마트팜과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등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은 지난 8월 30일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성군, 농식품산업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접수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지원
포장재 개발·제작·마케팅 협력

의성군은 관내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산업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산업분야의 총 3개 사업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국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도비) △전통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 지원사업(도비)이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해주고,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농

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해주며, 전통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까지 신청 자격이 대규모, 소규모로 나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중규모 업체 기준이 신설돼 업체들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전보다 자신들의 규모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 의성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많은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성군은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고용노동청, 영주지역 건설 현장 안전지도 강화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동행
안전조치 취약 현장 지도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건설 및 각종 공사 현장을 지청장이 직접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같이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이용해 수시로 순회하며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영주지청 관내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지난해 총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이미 4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다.

올해 그간 발생한 사망재해 4명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 3명,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1명으로 주로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영주지청은 이러한 순찰활동을 통해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폭염 노출 작업 현장 물그늘·휴식 제공, 폭우, 태풍, 산사태 등 취약 사업장 사전 안전조치 및 대응방안 지도, 기타 안전조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지도 등을 실시한다.

안전지도 순찰시 현장의 급박한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될 경우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안전조치 취약 정도가 매우 불량한 현장과 현장 지정지시 요구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9부터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이용해 현장을 직접 지도 점검하고 있는 이도희 지청장은 "아직도 우리 지역의 현장을 다녀보면 도로보수 작업, 간판설치 작업, 건설현장 등에서 여전히 안전모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및 감독 등을 통해 더욱 엄정하게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며, 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에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상태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예천 청소년 댄스팀 오리엔테이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지원사업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댄스팀 YC 댄스 크루가 지난 28일 오후 4시 아이사람안심케어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일환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해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한다.

재단은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해 지역 문화

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으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가 기획한 'YC 댄스 크루'는 청소년들이 댄스를 통해 창의력과 운동능력 향상, 자아 형성을 도우며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단원들과 강사진 등 약 20명이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사업과 강사진 소개, 교육 운영 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며, 단원과 강사진이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김학동 이사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YC 댄스 크루 단원들이 각자 숨겨왔던 끼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YC 댄스 크루 단원들에게 지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YC 댄스 크루는 전문적인 교육과 꾸준한 연습 시간을 갖고 연말에 단원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문경, 감홍사과·오미자 등 재배 확대 지원

재배 필요한 기자재 혜택
전년 대비 단가 2배 인상

문경시는 올해 지역의 풍토에 적합한 특화품종인 감홍사과와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배면적 증대 실적으로는 감홍사과 262농가에 79ha, 오미자 159농가에 53.4ha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ha당 지원기준으로는 감홍사과 4,000만 원, 오미자 2,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내용으로는 모뎀, 지주 등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원 단가를 2배 인상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재배면적을 감홍사과 800ha, 오미자 500ha로 늘리고, 1,000㎡(300평)당 생산량도 감홍사과는 2,300kg에서 3,200kg



으로 오미자는 540kg에서 900kg까지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일교차가 큰 백두대간 산간분지에서 비옥한 토질과 기후 등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하는 감홍사과는 10월 중순 경 수확하며 평균 당도는 20brix 내외로 식감은 연하고 과즙이 많고, 부사가 생산되기 전에 출하는 품종이다.

지속적인 현장 재배기술 지도, 병해충 방제 고

육으로 고품질 생산 및 생산량 증대 통한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마케팅과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추진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감홍사과와 오미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오는 13-15일 까지 동로면 일원에서 오미자축제를 내달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문경사과 축제를 개최한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감홍사과·오미자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문경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전국 1위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체국쇼핑몰 '예천군 브랜드관' 운영

예천장터와 유통 다각화
추석 맞이 10% 할인 이벤트

예천군은 공식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와 함께 우체국쇼핑몰 내 예천군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유통채널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예천장터를 통해 추석맞이 특판전(8.19.-9.12.)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우체국쇼핑몰과 손잡고 예천군 브랜드관을 개설해 메인 배너 노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예천군브랜드관은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며, 우체국쇼핑몰의 유통 전문 역량을 이용해 전국 우체국을 통한 상품 노출과 각 제휴기관 및 회원 대상 홍보로 예천군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특판전 동안 우체국쇼핑몰 내 10% 할인 이벤트 쿠폰을 발급하고, 이를 메일링, 메인딜(특가이벤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 예천군브랜드관 인지도를 높이는 공공협업형 통합마케팅을 추진한다.

권윤준 농경과장은 "전국망을 보유한 우체국쇼핑몰과 협력해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고, 추석맞이 매출신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제5회 상주 성동 기차길 치맥 페스티벌 개최

상권 활성화·주민 소통 계기

상주시 동성동에서는 지난달 30일 상주역 광장에서 제5회 상주 성동 기차길 치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상주 성동 기차길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의 만남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시민 노래자랑, 지역예술인 및 초창가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맥주 빨리 마시기·치킨 뼈 발골용 쑥기 대회 등 이색 이벤트가 이어져 축제 열기를 더했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의 가 슌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달 30일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회의와 함께 클린시티 현장을 점검했다. 권 시장은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옥동사거리, 태화오거리, 서부시장, 중앙신시장을 거쳐 안동 시청까지 걸어 도로변 환경정비와 관내 클린시티 현장을 점검했다.

칼럼

확장억제 강화, 핵균형 그리고 핵동맹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북한에서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핵무장 여론이 고조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지난 6월 19일 사실상의 북-러 동맹조약 복원 직후에도 그랬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엔 여당 정치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수차례 열렸고, 8월 7일 임포 의원실이 서울안보포럼과 주최한 세미나도 그중 하나였다. 사실 윤석열 정부 이래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2024년 '일체형 확장억제' 합의 등 북핵 대응에 유의미한 성과가 많았고, 8월 18일에는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3국 정상 공동성명도 나왔다. 바이든-기시다 이후에도 빈틈없는 대북억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핵안보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는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이 여전히 북핵

앞에 벌거벗은 채 국가 운명을 미국의 핵보호에 내맡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간 한미 정부가 외쳐온 '핵외교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환상일 뿐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동맹의 대처가 북핵 위협이 확대·진화되고 있는 속도와 정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중에 미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변화가 올 가능성에 관한 우려도 확산 중이다. 지금은 한국 정치가 불안정하고 미국에서 신고립주의 파고가 높아지는 시기다. 이제는 '워싱턴선언의 틀을 넘어 정치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된 동맹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북핵 관련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개별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해온 방식을 넘어 현재는 물론 예상되는 미래까지 커버하는 선제적·포괄적 동맹전략을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동맹 역량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 '한국 핵

무장을 통한 핵동맹' 등 3단계 전략을 합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을 기초로 지금 시행해야 하는 과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차기 과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차차기 과제, 염두에 두어야 할 미래의 특별 과제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연합연습, 북한이 오래전에 버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막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자동 개입과 핵보호를 포함하는 방위동맹조약 개정,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시 등은 당장 실행해야 하는 과제다. 미 전술핵 재반입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를 통한 한반도의 핵균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차기 과제며,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함양은 협의가 시급해야 하는 차차기 과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미-영 수준의 핵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은 최악 상황에 대비한 동맹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트랙-2 또는 트랙-1.5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핵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북핵의 양적·질적 팽창과 핵독트린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마뜩한 후계자의 부재, 만성적인 빈곤, MZ 세대의 체제 불만, 엘리트 탈북 등으로 극심한 체제 불안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것이 '내부 결속용 핵장난'을 부추길 가능성도 상존한다. 어쨌든 북핵 대응은 한국이 독자정착나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래서 동맹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건강칼럼

읽기와 쓰기를 힘들어해요! 난독증

이소정

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받아쓰기를 너무 많이 틀려요, '아이가 책을 오래 읽지 못해요'라고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이처럼 아이가 책 읽기를 매우 싫어하거나 글 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는 '아이가 단지 읽고 쓰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일까?' '혹시 난독증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단지 읽기를 거부하고 맞춤법을 자주 틀린다고 하여 난독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가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낮아

진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난독증이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난독증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의한 신경발달장애에 기인하며, 가족력 등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가 난독증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난독증으로 진단받는 아동은 평균적으로 약 5~8%라고 한다.

난독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음운처리능력(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의 결함이다. 음운처리능력이란, 문장이나 낱말이 음절이나 음소(말소리) 등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말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문자해독(decoding)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읽기 능력이다.

■ 난독증 아동의 연령대별 특징

- ▲ 학령 전기 아동
 - 언어 및 조음 발달이 늦거나 단어를 종종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 글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 반복적인 학습에도 불구하고 자모음을 구분하기를 어려워한다.
 - 초등학교 저학년
 - 익숙한 단어 외에는 잘 읽지 못하거나 이중 모음이나 받침이 있는 복잡한 단어를 읽기가 어려워한다.
 - 음운변동이 있는 단어는 읽기 힘들어한다.
 - 보고 쓰기는 가능하나 받아쓰기는 어려워한다.

■ 대구참여연대 성명서

홍준표 시장과 관료의 기고만장을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관료가 대구 경북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커녕 자신들의 독단을 비판한 경북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8월 28일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의 홍준표 시장 비판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사과와 의정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통합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적반하장, 기고만장이 도를 넘었다. 주민투표 등 주민의 결정권, 시·군의 자치권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홍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논란이 있을 때 비판과 반 비판을 있을 수 있다. 박성만 의장의 비판이 강하기는 했지만 막말은 아니었다. 비판을 넘어 정적 막말을 다반사로 하는 사람, 상식 밖의 독단을 자행하는 사람은

홍 시장과 대구시의 관료들이었다. 자기 조직안에서도 설명, 토론, 합의가 필요하고, 대상 기관과 합의해야 하는 일에서는 더욱 절차와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홍 시장은 본인이 정한 통합특별자치시의 출범 시점에 얽매어 합의의 기한도 맘대로 정해 놓고 통보했다. 시장의 장사치도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시장이 말하면 공무원이 앞뒤 없이 허겁지겁 집행하고, 비판하면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대구 시장의 나쁜 행태를 광역 지자체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통합이 안될 것은 뻔한 일이었고, 줄속적으로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양산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홍 시장과 대구시는 경북도의회를 탓하며 무산마저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한술 더 떠 대구국이 약소국에 강요

하듯이 도의회 의장이 사과, 사퇴하면 통합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겁박과 회피의 술수를 부렸다. 도대체 누가 성내야 하는 상황인가. '방귀 편 놓이 성내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다. 시장이 안하무인이나 공무원들도 기고만장이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모습이 대구 시민의 낮이 뜨겁다. 특히 황순조 실장은 비록 대구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이었지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 담임자를 사퇴하라고 한 건 묵과하기 어렵다. 홍준표 시장과 관료들이 주권자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홍 시장과 황 실장은 주권자 사·도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정치 논평

아무리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행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검은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우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현재 시각 관점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이는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지속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현재의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 고려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의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들에게 제공한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벌인 일입니다.

없는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인 것입니다.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지당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 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발한 탄핵은 18건으로, 정부 수립 후 76년간 발의된 탄핵소추 건수의 56%에 이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오직 방탄과 입법폭주에 남용하는 모습,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지 탄핵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피탐 흘러 일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우롱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10대는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니,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우와 스승, 친구와 동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속수무책 불어나는 피해만 체다만 뿐입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윤리가 못따라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상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판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절실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적 공조, 처벌 강화에 덧붙여 영유아 시기부터 접촉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윤리적 기술 활용 감각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가장 큰 고착은 완전한 사제 및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악의적 조작 영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